

이랜드복지재단, 사회복지실무자 가족 쉽과 회복

| 김은주 이랜드복지재단 사업기획2팀장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평소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했던 경력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 가정에게 쉽과 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7/4 ~ 7/7 일 3박 4일간 21가정 76명이 설악산으로 캠프를 실시 예정하고 있다. 연 4회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이 9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평소 업무로 인하여 제대로 부부관계를 맺지 못했던 사회복지사들에게 부부회복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설악산의 워터피아와 온천, 가족 나들이 등의 여가 프로그램이 있다. 가족 나들이는 캠프 사전에 가족들 간의 미리 짜울 수 있도록 하였고, 짜이지 못한 가족에게는 관광할 곳을 몇 군데 소개해 준 후 가족들이 가고 싶은 곳을 직접 선정하여 관광을 하고 그에 따른 입장료와 식대를 제공한다. 아이들 프로그램은 따로 기획하여 부모님이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아이들은 칼라믹스, 도자기 공예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이들이 4세부터 20세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오히려 큰 아이들이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 자원봉사자가 따로 필요 없다.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현재 사회복지사들은 예전보다는 처우가 많이 향상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한 사회복지사들을 위하여 가족 간의 쉽과 회복을 통하여 클라이언트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싶었다. 보통의 지역사회복지관은 휴가가 있지만 한

두 명 정도의 사회복지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 비인가 시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 등의 경우는 자리를 비울 경우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보니 휴가를 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간다고 해도 겨우 친척집을 갈 수 있을 뿐 문화생활은 누릴 수가 없다.

그러한 사회복지사들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Refresh Tour' 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처음 사회복지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했을 때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현금 제공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쉴 수 있도록 지원을 할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현금이 그대로 사회복지사들의 쉽의 반영이 될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서비스로서 제공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의 반응은?

업무에 시달리다보니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한 사회복지사들에게 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 또한 캠프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부부세미나의 만족도가 제일 높았다. 이러한 만족도를 반영하여 캠프 동안에 부부세미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평소 아이들의 문화생활에 신경을 쓰지 못한 사회복지사들이 많은데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집에 가기 싫다' 고 하는 아이들이 많다. 한 아이는 놀이공원에 꼭 한 번 가고 싶다고 하여 '꼭 다녀갈게' 라며 부모님이 날 짜를 잡았지만 시간이 되지 않아 저녁 5시에 도착하여 문 닫는 6시 반까지 밖에 놀지 못했다. 아이에게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렸던 문화생활이었다. 사회복지사 가정의

여건이 이렇다보니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처음 Refresh Tour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을 때는 신청자가 많지 않았고 또한 신청하고 싶어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으나 다녀 온 사회복지사들의 입소문을 통해 현재는 2:1의 경쟁률이 될만큼 높아져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의 반응은 매우 좋다.

사업 진행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모든 사회복지사가 참여할 수 없기에 객관적인 지표를 점수화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정부 지원을 받는지, 배우자의 직업과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3년부터 10년 근무자까지 중에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 중 10년 근무를 한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얻는데 실제로는 3년 근무자가 더 쉽과 회복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모든 주관적인 입장을 배려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 가정은 배우자가 사회복지 일을 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사회복지 일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꼭 가야한다고 몇 번이나 전화가 오고 두 번이나 신청을 하였지만 배우자의 급여가 높은 편이어서 선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7월 이후 올해 10월 중에 캠프를 계획 중이다. 이번 10월에는 가족 단위의 캠프를 계획하는 것은 물론, 미혼의 사회복지사 캠프를 계획 중에 있다. 미혼자의 캠프는 처음 기획하는 것으로 '사랑의 짝대기' 등의 미혼자만의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다.